

쏘도전쟁을 반영한 소련문학의 발전과정과 특징

엄명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세계의 진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유산을 사람들에게 대한 사상교양과 문화정서교양에 리용하기 위하여서는 그것을 우리 당정책을 지침으로 하여 분석평가하고 해설하여야 합니다.》(《김정일전집》 제3권 196페이지)

쏘도전쟁을 반영한 소련문학은 제2차 세계대전시기 가장 큰 사변의 하나였던 쏘도전쟁에 대한 생동한 예술적화폭을 통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침략적본성과 반동성을 폭로하고 인류에게 끼친 파국적인 후과를 보여준것으로 하여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의 진보적인민들의 반제계급의식을 높여주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쏘도전쟁문학은 쏘도전쟁시기와 그 이후 근 반세기동안 쏘도전쟁사변을 반영하여 창작된 문학을 말한다. 즉 쏘도전쟁과 관련한 사건과 사실, 인간들의 생활과 투쟁을 예술적으로 재현한 문학을 말한다.

소련에서 쏘도전쟁문학의 발전과정은 크게 세 단계(1940년대, 1950—1960년대, 1970—1980년대)로 나누어 분석할수 있다.

쏘도전쟁문학의 첫 단계는 1940년대이다. 이 시기는 쏘도전쟁문학의 발단이 열리고 이 문학창작이 가장 활발하던 시기라고 말할수 있다. 1940년대 쏘도전쟁문학은 쏘도전쟁시기와 전후시기 문학으로 나누어볼수 있다.

쏘도전쟁이 벌어졌던 1941년부터 1945년기간에 쏘도전쟁문학이 전국적범위에서 활발하게 창작되었으며 특히 시문학, 소설문학분야에서 많은 작품들이 창작되었다.

이 시기 시문학분야에서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었다. 레베제브-구마즈, 푸르코브, 이 싸콥스끼, 찌호노브를 비롯한 많은 시인들이 전쟁의 첫 시기부터 우수한 시작품들을 창작하여 전체 인민들을 침략자들을 몰아내기 위한 성전으로 불러일으켰다.

레베제브-구마즈의 서정시 《정의의 싸움》, 푸르코브의 시 《용감한 사람들의 노래》는 쏘도전쟁의 첫 시기에 창작된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서정시 《정의의 싸움》은 전쟁이 시작된지 며칠만에 작곡가 알렉산드로브에 의하여 작곡되어 즉시에 온 나라에 보급되었으며 전선으로 떠나는 병사들과 그들을 바래우는 후방의 전체 인민들이 사랑하는 가요로 되었다. 푸르코브의 시 《용감한 사람들의 노래》도 전쟁이 시작된 첫날에 창작되어 전선으로 떠나는 군인들앞에서 랑송된 시이다. 《용감한 사람을 총알도 두려워한다》는 시구절은 군인들의 심정을 격동시켰으며 원수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으로 끓어번지게 하였다.

쏘도전쟁이 일어났던 1941년 첫해에 《정의의 싸움》, 《용감한 사람들의 노래》외에도 푸르코브의 시 《원수가 내 집에 들어왔다》, 베드니의 시 《나는 자기 인민을 믿노라》, 찌호노브의 서사시 《끼로브는 우리와 함께》 등을 비롯한 수십편의 시작품들이 창작되었다. 전쟁의 첫해에 창작된 시들에서는 침략자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 조국보위에 대한 열렬한 호소, 침략자들을 조국강토에서 몰아낼 굳은 결의가 힘있게 맥박치고있다.

전쟁이 장기성을 띠게 되면서 1942년부터 1945년사이에도 많은 시작품들이 창작되었다. 전쟁의 두번째 해인 1942년에 이싸콥스끼가 쓴 시들인 《오, 안개, 나의 안개여》, 《잘 있거라 거리들아, 농가들아》, 《조그마한 불빛》을 비롯한 여러편의 시들과 알리게르의 서사시 《조야》, 안또폴리스끼의 서사시 《아들》, 찰호노브의 시 《세 공산당원의 노래》, 쉬빠초브의 시 《결투》 등과 같은 작품들이 창작되었다.

1943년에도 시인들의 창작활동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레닌의 위업을 끝까지 고수하려는 쏘련인민의 지향을 노래한 찰호노브의 시 《레닌의 기발》과 전쟁의 준엄한 시련을 이겨내고 사랑하는 조국을 지켜가려는 서정적주인공의 굳은 결의를 반영한 쭈르코브의 시 《조국》, 《날저물무렵 그 너자를 게스타포에 끌어왔다》와 같은 작품들이 대표적이다.

1944년에 창작된 시들가운데서 대표적인것은 쓰딸린의 령도밑에 원쑤와의 판가리싸움에서 용맹을 떨치려는 병사들의 맹세를 노래한 쭈르코브의 시 《쓰딸린의 전사》와 이싸콥스끼의 시 《로씨야에 드리는 말》 등이며 1945년에 창작된 시들가운데는 쭈르코브의 시 《수령》, 프와르돕스끼의 서사시 《와셀리 쵸르킨》, 이싸콥스끼의 시 《로씨야녀인에게》 등이 있다.

1940년대 전반기에 소설문학분야에서도 성과가 이룩되었다. 많은 작가들은 단편소설과 중편소설을 전시조건에 알맞는 소설문학형태로 보고 여기에 힘을 넣었다. 대표적인 단편소설들로서는 웨. 까다예브의 단편소설 《기발》(1942), 아. 톨스포이의 단편소설 《로씨야성격》(1944), 찰호노브의 단편소설집 《레닌그라드이야기》(1943)와 같은 작품들을 들수 있다.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의 섬을 지켜 희생적으로 싸운 붉은군대 한 구분대병사들의 대중적영웅주의를 진실하게 형상한 단편소설 《기발》과 전쟁시기에 발현된 인민들의 아름다운 정신도덕적풍모를 깊이있게 그린 단편소설 《로씨야성격》과 같은 작품들은 독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전쟁시기에 단편소설들과 함께 중편소설들도 많이 창작되었다. 그가운데서 베크의 중편소설 《월로폴람스크대로》(1944), 씨모노브의 중편소설 《낮과 밤》(1944), 그로쓰만의 중편소설 《인민은 죽지 않는다》(1942), 고르바토프의 중편소설 《정복되지 않은 사람들》(1943), 와셀렙쓰까야의 중편소설 《무지개》(1942), 글라드코브의 중편소설 《맹세》 등과 같은 작품들이 대표적이다.

중편소설 《낮과 밤》은 쓰딸린그라드방어전투에서 발휘된 방위자들의 영웅적투쟁을 진실하게 펼쳐보이고있으며 중편소설 《무지개》에서는 적들에게 강점당한 우크라이나의 한 농촌마을에서 굴함없이 침략자들과 맞서싸운 인민들의 투쟁을 생동하게 묘사하고있다.

1940년대 전반기에 실화, 정론작품들도 많이 창작되어 인민들을 전쟁승리로 크게 고무하였다. 그로쓰만의 실화집 《쓰딸린그라드격전》, 실화 《베를린으로 가는 길》, 파제예브의 실화집 《봉쇄시기의 레닌그라드》는 이 시기에 창작된 대표적인 실화작품들이다. 그리고 이 시기에 창작된 알렉세이 톨스포이와 고르바토프의 정론작품들은 힘있는 호소성과 통속성, 깊은 서정성으로 하여 독자들의 심금을 울리었다.

1940년대 전반기 쏘도전쟁문학창작에서 특징적인것은 우선 주제사상적내용이 전쟁현실을 반영하는데로만 지향된것이다.

이 시기 문학의 주제방향은 전선에서의 붉은군대 장병들의 영웅적투쟁, 적강점지역에서의 빨찌산부대들의 활동과 인민들의 지하투쟁, 전시생산을 보장하기 위한 후방인민들의 투쟁 등으로 일관되었다. 그리고 작품들의 사상적내용에서 기본으로 되는것은 적과의 싸움에서 용감성과 영웅성, 원쑤에 대한 적개심, 열렬한 애국주의, 승리에 대한 신심과 혁명적락관주의 등을 표현하는것이였다.

이 시기 쏘도전쟁문학창작에서 특징적인것은 또한 조국보위에 떨쳐나선 영웅적성격의 소유자들을 긍정적주인공들로 내세운것이다.

모든것을 전쟁승리를 위한 투쟁으로 지향시켜야 하는 전시현실은 문학의 주인공도 전쟁에 참가한 사람들의 본보기로 될수 있는 영웅적성격의 소유자들을 내세울것을 요구하였다. 이 시기 문학이 내세운 긍정적주인공들은 전선과 후방, 적후에서 사회주의조국을 지켜싸운 영웅들이고 애국자들이였다. 이 시기 문학에서는 어제날의 평범한 군인, 로동자, 농민, 지식인, 청년학생이였던 각계층의 사람들이 영웅적인 성격의 소유자들로, 조국수호자들로 자라나는 과정을 깊이있게 그리는데 주의를 돌렸다.

이 시기 쏘도전쟁문학창작에서 특징적인것은 또한 전시조건에 맞는 짧고 기동적인 문학형태의 작품들이 많이 창작된것이다.

전쟁시기 작가들의 관심사로 된것은 주로 시문학이였으며 여기에서도 서정시, 가요와 같은 짧은 형식의 시작품들이 많은 자리를 차지하였다. 소설창작에서도 작가들은 장편형식의 작품보다도 단편소설, 중편소설작품창작에 힘을 넣었다. 정론, 실화와 같은 산문작품들도 이 시기 중요한 문학형태로 되였다.

쏘도전쟁이 끝난 1940년대 후반기에 와서 쏘도전쟁문학은 계속 적극적으로 창작되였다.

1940년대 후반기에 쏘도전쟁문학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게 된것은 사람들의 머리속에 방금 겪은 전쟁에 대한 인상이 강하게 남아있은 사정과 관련된다. 사람들은 쏘도전쟁시기에 영웅적으로 희생된 사람들, 전쟁시기 직접 체험하였던 어려운 나날들과 시련에 대하여 잊지 못해하였으며 전쟁이 끝난 평화로운 분위기속에서 그것을 돌이켜보고 싶어하였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작가들은 쏘도전쟁문학창작에 정열을 쏟아부어 많은 작품들을 련이어 내놓았다.

1940년대 후반기에 쏘도전쟁문학창작이 활발히 진행된것은 이 시기 작가대렬의 구성상태와도 관계된다. 전후 첫 시기 쏘도전쟁문학창작에 참가한 작가들은 대다수가 전쟁시기에 종군기자로 있었거나 후방에 있으면서 전쟁을 체험한 사람들이였다.

1940년대 후반기 쏘도전쟁문학창작에 이바지한 대표적인 작가들로서는 아. 파제예브와 베. 뿔레보이, 아. 프바르도스끼를 들수 있다. 파제예브는 쏘도전쟁이 끝난지 얼마 안되어 전쟁시기에 있는 실제한 사실에 기초하여 적강점지역 청년들과 인민들의 지하투쟁을 실감있게 형상한 장편소설 《청년근위대》(1945)를 창작발표하였으며 뿔레보이는 적비행기들과의 공중전에서 부상당하여 두다리를 잃었지만 다시 비행사로 되여 위훈을 세우는 한 추격기비행사의 영웅적인 투쟁모습을 형상한 장편소설 《참된 사람의 이야기》(1946)를 내놓았다.

1940년대 전반기에는 시문학이 주도적인 자리를 차지했다면 1940년대 후반기에는 소설문학이 우세를 차지하였다.

전후시기에 창작된 소설작품들을 보면 엔. 비류코브의 장편소설 《갈매기》(1945)와 이. 에렌부르크의 장편소설 《폭풍우》(1947), 곤차르의 장편소설 《기수들》(1-3부)(1946-1948),

에프. 뻬료로브의 장편소설 《평화를 위한 투쟁》(1948), 에. 까자께비치의 장편소설 《오데르강반의 봄》(1950)과 중편소설 《별》(1947), 웨. 까따예브의 장편소설 《쑤베트주권을 위하여》(1949)와 중편소설 《련대의 아들》(1945), 이. 샤마긴의 장편소설 《깊은 흐름》(1949), 엠. 부벤노브의 장편소설 《벗나무》(1-2부)(1947-1952), 웨. 빠노바의 중편소설 《길동무들》(1946) 등과 같은 작품들을 들 수 있다. 이 작품들에서는 쑤도전쟁의 각이한 시기, 각이한 전선들에서 싸우는 전선군인들의 영웅적투쟁과 적강점지역에서의 빨찌산들의 투쟁을 비롯하여 전신인간들의 생활과 투쟁을 다면적으로 깊이있게 형상하였다.

1940년대 후반기에 시문학작품들도 창작되었다. 이 시기 시문학에서는 쑤도전쟁을 승리에로 이끈 수령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감정, 봉쇄된 레닌그라드에서 싸우는 인민들의 영웅적인 희생정신, 사랑하는 고향땅을 강점한 침략자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과 열렬한 조국애를 반영한 시들을 비롯하여 많은 시작품들이 창작되었다.

쑤도전쟁이전시기부터 창작활동을 벌려온 오랜 시인들인 쑤르꼬브의 시 《그 이름, 그 기치》(1949), 아. 말리슈꼬의 서사시 《프로메테우스》(1947), 엠. 라긴의 시 《레닌그라드우에서》(1948), 엠. 이싸콥스끼의 시 《원쑤들이 고향집을 불태워버렸네》(1945)와 《철새들은 날아간다》(1948), 베. 슈빈의 시 《병사》, 아. 프바르둡스끼의 시 《전쟁이 끝나던 날》, 《쓰라린 추억》, 《나는 르췌보부근에서 전사하였다》(1946) 등과 같은 작품들이 대표적이다.

오랜 시인들과 함께 손에 무장을 잡고 쑤도전쟁에 참가했던 신인시인들도 시창작에 힘을 넣었다. 오를로브의 시들인 《제3속도》, 《행군은 계속된다》, 루꼬닌의 시 《홍분》, 메췌로브의 시들인 《길은 멀다》, 《돌아오다》, 《보병에 대한 회상》을 비롯한 시작품들이 창작되었다.

이 시기에 쑤도전쟁을 반영한 소설, 시문학작품들과 함께 실화작품들도 창작되었다. 대표적인 실화소설들로서는 곱빠크의 《뿌찌볼로부터 까르빠뜨까지》(1945), 웨르췌고라의 《깨끗한 량심을 지닌 사람들》(1946) 등을 들 수 있다.

1940년대 후반기 쑤도전쟁문학창작에서 특징적인것은 우선 소설문학이 우세를 차지하면서 발전의 경향을 보여준것이다.

이 시기 쑤도전쟁문학창작에서 특징적인것은 또한 크지 않은 사건이나 몇명 안되는 등장인물들의 형상을 통하여 전선군인들의 영웅성과 희생성을 깊이있게 보여주려는 경향성이 나타난것이다. 3부작으로 된 곤차르의 장편소설 《기수들》에서는 한 박격포중대 군인들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형상하면서 전투에서 발휘되는 그들의 영웅성과 희생성을 깊이있게 그려내고있으며 중편소설 《별》에서는 부대의 전투승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희생적으로 싸운 쑤련군 한 정찰조의 영웅적인 위훈을 깊이있게 형상하고있다.

이 시기 쑤도전쟁문학창작에서 특징적인것은 또한 전쟁에 참가한 인간들의 정신상태와 내면심리를 분석적으로 파고들어 그린것이다. 작가들은 전쟁에서 발휘되는 전투원들의 영웅적행동 그자체보다도 전쟁에 참가한 각이한 인간들의 정신심리상태를 깊이있게 드러내는데 주의를 돌렸다. 이러한 경향성은 웨라 빠노바의 중편소설 《길동무들》, 베레즈꼬의 장편소설 《사령관의 밤》, 까자께비치의 중편소설 《초원의 두사람》 등과 같은 작품들에서 나타났다.

이 시기 쑤도전쟁문학창작에서 특징적인것은 또한 허구가 없는 실화문학작품들을 창

작하려는 작가들의 지향이 높아진것이다. 쏘도전쟁이 끝난 후 전쟁시기에 있는 실재한 사실자료들에 대한 사회적관심이 높아지고 전시에 겪은 자신들의 체험을 글로 옮기려는 전쟁참가자들의 지향이 높아졌으며 그 결과 허구없는 실화문학형태의 작품들이 많이 창작되었다.

이처럼 1940년대는 쏘도전쟁문학발전의 첫 단계로서 이 문학발전에서 근본적인 성과가 이룩된 시기라고 말할수 있다.

1950-1960년대는 쏘도전쟁문학발전의 두번째 단계로서 이 시기에 쏘도전쟁이 끝난 때로부터 일정한 시기가 흘렀지만 쏘도전쟁을 반영한 문학작품들은 여전히 활발하게 창작되었다.

1950-1960년대에 전선세대작가들로 불리우고있는 신진작가들이 문단에 등장한것은 쏘도문학작품창작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전선세대작가들로서는 쏘도전쟁시기 포병들이였던 유리 본다레브와 예브게니 노쑈브, 그리고리 바클라노브, 보병들이였던 와쉴 비꼬브(후에는 포병으로 됨), 이완 아꼐로브, 바체슬라브 콘드라찌예브, 박격포수였던 미하일 알렉세예브, 크레믈린군관학교학생이였다가 빨찌산부대지휘관이 된 콘스탄틴 위로비요브, 통신병들이였던 워포르 아스파피예브와 유리 곤차로브, 땅크병이였던 아나톨리 아나니예브, 자동포수였던 워포르 꾸로차킨과 알렉세이 아다모비치 등을 들수 있다.

전선세대작가들은 시나 극문학창작보다도 소설문학창작에 더 깊은 주의를 돌렸으며 전쟁현실을 생동하게 반영한 작품들을 내놓았다. 게. 바클라노브의 중편소설들인 《한치의 땅》(1959), 《죽은 사람들을 욕되게 하지 말라》(1961), 유리 본다레브의 중편소설 《마지막 일제사격》(1959)과 장편소설 《뜨거운 백설》(1969), 베. 와쉴리에브의 중편소설 《고요한 저녁노을》(1969), 웨. 비꼬브의 중편소설들인 《세번째 신호탄》(1962)과 《쑈뜨니꼬브》(1970), 아. 아다모비치의 장편소설 《빨찌산들》(1960-1963) 등과 같은 작품들이 대표적이다.

1950-1960년대에 쏘도전쟁문학발전에 이바지한 작가들가운데는 전선세대작가들의 예도 전쟁전부터 창작활동을 벌려온 오랜 작가들과 전쟁에 참가해보지 못하고 1960년대 이후에 문단에 들어선 신진작가들도 있었다.

오랜 작가들로서는 솔로호브, 레오노브, 씨모노브, 파제예브, 쑈르꼬브 등을 들수 있다. 씨모노브는 쏘도전쟁현실을 깊이있게 반영한 3부작장편소설 《산 사람과 죽은 사람들》(1959-1971)을 내놓았으며 솔로호브는 장편소설 《그들은 조국을 위하여 싸웠다》(1969)를 창작완성하였다.

전쟁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하고 1960년대에 문단에 새롭게 들어선 작가들가운데서 대표적인 작가들로서는 뽀프르 뽀로스꾸린과 아나톨리 이와노브를 들수 있다. 뽀프르 뽀로스꾸린의 장편소설 《결말》(1966)은 쏘도전쟁을 깊이있게 그린 대표적인 작품으로 된다.

1950-1960년대에 쏘도전쟁문학창작에서 특징적인것은 우선 전선세대작가들의 출현으로 이 문학이 더욱 풍부화되고 발전의 경향을 보여준것이다.

전선세대작가들의 창작에서 주목되는것은 전선군인들의 생활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그린것이다. 그들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전투와 행군, 전호와 엄폐부에서의 휴식 등으로 이어지는 전선군인들의 생활을 자기들의 실지체험에 기초하여 생동하게 그려내었다. 그들

은 또한 장편형식의 작품창작보다 중편소설창작에 많은 힘을 넣음으로써 일련의 창작적 경험을 남기였다. 그들의 창작에서 주목되는것은 인물과 사건묘사가 복잡하지 않고 간명하고 생동한것이다.

1950-1960년대에 쏘도전쟁문학창작에서 특징적인것은 또한 전쟁시기에 있는 자그마한 사건, 사실들을 깊이있게 파고들어 그리는 경향이 나타난것이다. 전선세대작가들을 비롯한 일부 작가들은 크지 않은 사건, 사실들을 소재로 잡고 주인공들의 생활과 행동선, 심리적체험을 세부적으로 파고들어 묘사하는데로 나아갔다. 실례로 본다레브는 장편소설 《뜨거운 백설》(1969)에서 쓰딸린그라드격전시기에 있는 여러 전투들가운데서 미슈코바강 부근에서 있는 하나의 전투를 구체적으로 그리면서 전투에 참가한 한 포종대전투원들의 영웅적위훈과 함께 그들의 내면심리를 깊이 파고들어 그리는데 모를 박고있다.

1950-1960년대에 쏘도전쟁문학창작에서 특징적인것은 또한 전쟁의 사변들을 폭넓게 포괄하는 큰 규모의 화폭을 창조하려고 지향한것이다.

코제브니코브의 장편소설 《검과 방패》(1965), 씨모노브의 장편소설 《타고난 병사는 없다》(1960-1964)와 《마지막여름》(1965-1970), 페진의 장편소설 《모닥불》(1961-1965) 등과 같은 작품들에서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며 전쟁과정을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많은 사건, 사실들이 묘사되고있다.

1970-1980년대는 쏘도전쟁문학의 세번째 단계이다. 이미 1950-1960년대에 쏘도전쟁을 반영한 작품창작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씨모노브, 쓰따드뉴크, 차콥쓰끼, 이와노브, 뿌로스꾸린, 본다레브 등과 같은 작가들은 이 시기에 와서도 계속 적극적인 창작활동을 벌려 우수한 작품들을 내놓았다. 이들은 쏘도전쟁을 폭넓게 반영한 장편소설창작에 큰 힘을 넣었다. 다부작장편소설들인 씨모노브의 장편소설 《산 사람과 죽은 사람들》(1971), 쓰따드뉴크의 장편소설 《전쟁》(1980), 차콥쓰끼의 장편소설 《봉쇄》(1975)와 《승리》(1981), 이와노브의 장편소설 《영원한 부름》(1976)과 같은 작품들이 대표적이다.

1970-1980년대에 중편소설들도 많이 창작되였다. 대표적인 작품들로서는 웨. 아스파피예브의 중편소설 《목동과 처녀》(1971), 웨. 비코브의 중편소설들인 《새벽까지 살아야 한다》(1972), 《쏘프니코브》(1970)와 《그의 대대》(1976), 예. 노쑈브의 중편소설 《우스바프의 투구 쓴 무사들》(1977), 아. 아다모비치의 중편소설 《징벌자들》(1980), 이. 치그리노브의 중편소설 《메추리의 울음소리》(1972)와 《피의 증명》(1977), 웨. 폰드라찌예브의 중편소설 《싸슈까》(1979) 등을 들수 있다.

1970-1980년대 쏘도전쟁문학창작에서 특징적인것은 다부작형식의 규모가 큰 장편소설들이 많이 창작된것이다.

당시 작가들속에서는 쏘도전쟁의 전모를 폭넓게 보여주려는 의도로부터 출발하여 작품의 형식과 규모를 크게 잡아 다부작형식의 장편소설창작으로 나갔다. 쓰따드뉴크는 1967년부터 1980년까지 3권으로 된 다부작장편소설 《전쟁》을 내놓았으며 차콥쓰끼는 1968년부터 1975년까지 5권으로 된 장편소설 《봉쇄》를, 이와노브는 1970년부터 1976년까지 2권으로 된 장편소설 《영원한 부름》을 내놓았다.

1970-1980년대 쏘도전쟁문학창작에서 특징적인것은 또한 중편소설창작이 계속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새로운 경향성을 나타낸것이다. 전선세대작가들에 의하여 이미 1950-1960년대에 중편소설들이 많이 창작되기 시작하였지만 이 시기에 와서도 여전히 발전의 경향을

보이면서 적극적으로 창작되었다. 이 시기 창작된 중편소설들에서 나타난 새로운 경향성은 쏘도전쟁을 취급하면서 전투에서 발휘되는 영웅적인 위훈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전쟁시기 흔히 있을수 있는 평범하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소재로 하면서 전시인간들의 정신도덕적풍모를 깊이있게 밝혀내는데로 지향한것이다. 전선길에서 우연히 만난 처녀에 대한 사랑을 생명이 지는 마지막순간까지 고이 간직한 군인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있는 웨. 아스파피예브의 중편소설 《목동과 처녀》나 인민구전문학을 리용하여 쏘도전쟁에 대한 이야기와 중세기 로씨야무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독특하게 결합시킨 예. 노쑈브의 중편소설 《우스바프의 투구 쓴 무사들》 등과 같은 작품들이 그 대표적인 실례로 된다.

1970-1980년대 쏘도전쟁문학창작에서 특징적인것은 또한 전쟁시기의 사건, 사실들을 현재의 시점에서 반영하면서 현실에서 절실하게 제기되는 정치적, 철학적, 사회도덕적인 문제들을 쏘도전쟁과 결부시켜 해명하려고 한것이다. 이러한 경향이 가장 뚜렷이 나타난 작품들은 본다레브의 장편소설들인 《기슭》(1975)과 《선택》(1980)이다. 작가는 《기슭》에서 1970년대에 한 쏘련작가에게서 있는 사실을 전쟁말기인 1945년 5월에 있는 사건들과 결부시키면서 순결성과 저렬성, 인간성과 비인간성 등 도덕적문제를 그리고 《선택》에서는 쏘련의 한 미술가가 1970년대에 겪은 일을 전쟁이 한창 가렬하게 진행되던 1943년 7월에 있는 사건들과 결부시키면서 량심과 리기주의, 결백성과 위선 등의 도덕적문제들을 각각 해명하고있다. 이 작품들에서 작가는 지성인들을 주인공으로 설정하고 그들의 내면세계를 깊이 파고들면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철학적으로 해명하려고 지향하였다.

쏘도전쟁문학은 쏘도전쟁에 대한 력사적화폭을 통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세계제패야망과 침략적본성, 교활성을 신랄하게 폭로하고 전쟁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새 세대들에게 쏘도전쟁의 경험과 교훈을 알려줌으로써 그들이 옳은 전쟁관점을 가지고 제국주의와 끝까지 맞서싸울 혁명적각오를 가지게 하는 혁명적인 문학으로 된다.

실마리어 쏘도전쟁문학, 전선세대작가